

코로나 시대의 대학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변화하는 세상 불변의 복음

장종현 (백석대학교 설립자 겸 총장)

1976년에 설립된 우리 백석대학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양성하여 인류와 사회를 섬길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뉴노멀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코로나19사태가 사실상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불확실성의 증가와 이로 인한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 뿐 아니라 교육 분야의 환경에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우리 대학도 이런 현실이 무척 당혹스럽고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총장으로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많은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 준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위해 그 어떤 때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학교는 오래 전부터 온라인교육, 원격수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대학에는 교수학습개발원이 교수의 학습능력을 개발할 뿐 아니라 원격강의를 시범적으로 운용하도록 해왔습니다. 대학원에는 원격교육개발원이 질 높은 강의를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강의제작에 힘써왔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온 결과 우리 대학은 큰 무리 없이 교수님들이 원격 강의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교수님들 강의에 최적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상 강의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강의 제작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라인을 구축하여 모든 교수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실제로 영상 제작하는 것을 콘텐츠로 만들어 시연해 주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 시간이 없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협력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급변하는 상황으로 인해 더 많은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게 되면서 무크(MOOC)나 명사 특강과 같은 온라인 공개 수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등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실재감 있는 학습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발맞추어 우리 학교는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이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인류를 섬기는 사역임을 잊지 않고 정체성을 견고히 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증유의 사태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바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어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도 사람을 살리

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임입니다. 시대는 변화하지만 복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대학들은 신앙적인 정체성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비대면의 시대에 사람들은 긴밀한 교제와 사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단지 하나의 위기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신학적 정체성은 개혁주의생명신학입니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개혁주의신학을 제대로 실천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 삶을 통해 우리는 개혁주의신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됩니다. 문화적 적응성과 함께 복음적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대학교육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 있는 신앙입니다. 교회역사 2000년의 세월 동안 교회는 수많은 위기를 겪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살아남았고 번성하였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이런 저런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미지의 바다로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시작합시다.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통찰력 있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변함없이 남아있으려면 변해야 한다.”

How should Be the University Education Changed in the Age of COVID-19?:

Unchanging Gospel in Changing World

Jong Hyun Chang (Founder and President of Baekseok University)

In 1976 Baekseok University launched on the conviction that the education that change people and relive the spiritual life is possible by the word of God. The founding spirit of Baekseok Schools is, fostering a human being of decent character, to produce talented persons serving the humankind and society.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enormous impact around the whole world. We might this situation as the Age of New Normal. While the plight of COVID-19 is virtually getting into a prolonged war, the growth of uncertainty and its accompanying changes are shown rapidly in every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etc. Not only in the individual life but also in the circumstances of educational field drastic changes are emerging. It is true that Baekseok University is also embarrassed and in tough situation at these phenomena. This situation did not exist ever and is the first experience to us all.

As a president of a Christian university I have thought a lot about the way how we can overcome this crisis situation. In the circumstance we were spending one whole semester in untact courses, I am very grateful to professors and

students bearing so much sacrifice and trouble.

It is evident that, though everything is strange, we should make our effort for novel transition more than anytime. Fortunately, Baekseok University had been concerned about online study and distance lecture long time ago. It is the reason why our school could cope with the transition into these new systems immediately. In our university, the Center of Teaching and Learning had not developed only learning abilities of professors but also operated distance classes on a trial basis. In the level of graduate schools, the Center of Distance Education had been endeavored in producing cyber-classes in order to provide high quality distance lectures. As a result of preparing future in these ways, professors of our school were able to adapt to distance lectures without a big trouble.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staffs taking charge of administrative works have supported the production of video lectures, constructing systems optimized to professor's lectures. Building and providing guide-lines enabling self-producing, they also gave a demonstration about making contents of producing video lectures. Considering that there were not sufficient understanding and preparative time, these cooperations are quite significant.

Since more teachers and students are experiencing on-line classes on account of the rapid change, need for on-line open classes such as MOOC or celebrity

special lectures is increasing and demand for realistic learning including VR, AR, MR, etc. is getting bigger. Coping with these needs, our school will make much endeavor and preparation for improving education environment and enhancing quality of education. However, the thing which we will have to devote ourselves more than these efforts is to examine and confirm our religious identity.

We are living in the time of a rapid transition. We have met an unprecedented state of affairs. Among us there are overflowing anxiety that we might be eliminated if we are not able to adjust to these changes properly. Even in the age of this tremendous change, however, to give genuine life to human beings is the gospel of life of Jesus Christ. Times change, but gospel does not. In the time of COVID-19 Christian Universities stick firmly to the religious identity. Ironically in the age of non-face-to-face people are more eagerly longing for intimate fellowship and relationship than any times. In this respect the crisis that we are facing now is not just a crisis but also another chance.

The theological identity of our school is Reformed Life Theology. Reformed Life Theology is a movement to practice Reformed Theology properly. We can practice Reformed Theology through the spiritual life in which Christ lives in me and I live in Him. We are not to be afraid of changes. We are not to forget

evangelical identity along with cultural relevance. The university education after COVID-19 have to encounter enormous mutations more than we think. Our Christian faith is a living faith. Though it has encountered so many troubles, during the past 2000 years, Christian church has survived rather flourished. To live is indeed to face this or that challenge. Do not be afraid of change, but embark our new religious voyage on uncharted waters of uncertainty. Even our future is in God's hand. Here is an insightful saying: "If the church is to remain the same, it must change."